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韠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오언절구(五言絕句)

昨夜(간밤)

간밤에 서원(西園)서 술에 취해서 昨夜西園醉(작야서원취)
돌아와 달 보며 잠이 들었지. 歸來對月眠(귀래대월면)
새벽바람 퍽이나 다정하여서 曉風多意緖(효풍다의서)
꿈을 불어 매화가에 이르렀구나. 吹夢到梅邊(취몽도매변)

秦始皇(진시황)

책 불사른 그 꾀 너무 졸렬하구나 焚書計太拙(분서계태졸)
검은 머리 백성 어이 어리석으리. 黔首豈曾愚(검수기증우)
여산의 무덤을 파헤친 것은 竟發驪山冢(경발여산총)
시례(詩禮) 익힌 유자가 아니었다오. 還非詩禮儒(환비시례유)

이달을 孝의 달로

權 寧 翼(본원 부총재)

이달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잊었던 인륜을 되돌아보게 하는 설이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쳐 있어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가정의 소중함을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달이다. 어린이는 父母의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모에게는 자식의 관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달이다.

이러한 가정의 달 못지않게 정월은 어린이의 父母 사랑과 父母의 자식 사랑은 천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세포와 같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식의 부모 사랑인 孝인 것이다.

어린이의 父母 사랑은 대개의 경우 탈없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효는 사람에 따라 行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이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는 쉬워도, 위로 치켜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과 같은 법칙과도 같다.

효는 당사자의 윗대에 행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소홀하거나 잊기 쉬운 것이다.

더욱이 물질 만능 시대인 핵가족화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효의 참뜻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효는 어릴 때부터 생활화 교육으로 강제로 몸에 습관 되도록 하고, 교육하고, 敎化하였기에 효의 문화가 꽃피웠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과거 것은 무조건 배척하고, 전통이라고 하면 고루하다고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잉태한 그 母體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만연으로 가져온 요즘 사회 현상은 어떤가?

각종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가 빈발하고 사회 질서가 혼란해져 가고 있다.

윗사람에게 베푸는 情이 제대로 되어 있고, 효의 마음이 충만할 때 사회는 안정되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반목과 대립, 혼란도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孔夫子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오늘의 현실을 내다보듯이, 어떤 사람이 '선생께서는 왜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고 묻자, '서경에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에 늘 정치가 있느니 라고 일렀거늘, 바로 그것이 정치를 하는 것인데 일부러 정치를 한다고 나설 이유가 무엇이요?' 라고 강조했다.

父母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는 그 자체가 사회를 고르게 하는 정치의 기초라고 역설했던 것이다.

효제를 실행하면 그것이 3촌·4촌에게 전파되고 이웃에 알려져 사회는 저절로 안정되고 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자 온 가족이 모인 때 효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정화되고, 안정되고 반듯하게 되려면 효가 정착되어야 될 것이다.

효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캠페인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정월 5월, 음력 8월 한가위를 기해 효 확산 운동의 달로 정했으면 한다.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불행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일생에는 행복과 불행이 반반 정도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인생이란 그렇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느끼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행이 연속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에이즈 어린이를 보고, 어린이들의 공통점이 웃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작가가 있다. 어린이들은 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좋은 일이 없다면서, 인상을 찡그리며 우는 어린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힘이 없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현세(現世)는 악몽일 수밖에 없다. 남편에게서 에이즈를 감염받고 이제는 하나뿐인 자식까지 잃게 될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 부인도 아마 얼마 후에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불행의 예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는 부인도 있다.

나는 1966년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USOM(미국 원조기관) 등의 지원으로 1966년 7-8월(하계조사)과 1967년 1-2월(동계조사)에 서울시내 영세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일이 있었다. 1967년 7월에 '도시영세민에 관한 연구' 라는 보고서를 출간하여 각 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연구에는 박형종(朴亨鍾)·김태룡(金泰龍)·강길원(姜吉遠) 선생 등이 동참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학생 11명과 이화여대 사회학과 학생 3명 등 14명이 조사원으로 활약하였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귀중하고 희귀한 연구였던 까닭에 그 결과가 동아일보에 연재되기도 했다. 서울시내의 하천변 영세지역·평지 영세지역·구릉(丘陵) 영세지역·한강변 영세지역에 소재했던 13,159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조사대상지역과 가구는 서울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의 판단에 따라 불량주택에서 살고, 교육·문화·생활수준이 낮은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이들의 생활 상태는 상상 이하였는데, 그 후 이들의 상황이 어찌 변화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당시에는 행복지수 같은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일들을 그대로 넘겨 버린 것이 후회스럽다. 빈곤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행복 문제를 등한시 했던 사실이 몹시 아쉬워진다.

1992년 6월에 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 환경개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당시 나는 환경처장관이었으며 사절단장인 정원식(鄭元植) 총리를 비롯하여 15명이 참석하였다. Copacabana 해변가에 있던 숙소로부터 회의장까지는 자동차로 약 40분 걸렸다. 하루는 리우 데 자네이루 시내를 관광했는데 안내하던 가이드가 "저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빈민굴인데 약 1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경찰관은 물론이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그러더니 저기서 사는 주민들은 전기와 물을 시에서 공짜로 공급받고 있어서, 자신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닌게 아니라 그러한 사고방식도 성립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2000년 5월 집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얼마 안되서 '의학신문' 창간자인 박선규(朴善奎, 1925-2005) 박사가 한 말이 떠오른다. "권 박사 내외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건강하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 몇 년 후 박 박사 자신이 전립선암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다. 나도 몇 번이고 문병했지만 좀체로 나아지는 것 같이 않더니 결국에 2005년 10월 5일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금은 따님인 박연준 여사가 회장이 되어 의학신문사를 이끌고 있는데 나는 창간기념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한 마디 한다. 그럴 때마다 박 박사가 하던 말이 떠오른다. 인생은 불공평하게 보이는가 하면, 공평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의 마음 속에는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언제나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

궁궐에 살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꼭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론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역시 나름대로의 고민은 있게 마련이고 자신을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

나는 행복이란 불행을 경험하는 데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이 세상에 불행이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인데, 이 불행에서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불행에서 벗어나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속하고 있는 위치에 만족하고, 불행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앞에서도 적은 바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일, 비참한 현실 등은 수없이 많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처세는 "내 자신은 그렇지 않으니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기의 존재에 감사하는 사람은 빨리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행이나 좌절이, 행복을 향한 필수조건이라고 이해한다면 언제고 불행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7.2-1962.8.9)가 '행복' 에 관하여 쓴 글을 소개한다.

'행복을 바라고 찾고 있는 동안 너는 행복해질 수 없다. 비록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 더는 행복해질 수 없다. 잃은 것을 아쉬워하고 탄식하며 욕심에 매여 집착하는 동안에는 너는 아직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모든 바라는 바를 포기하고 욕심이나 집착을 버릴 때, 행복이라는 말을 찾지 않게 될 때 그 때, 비로소 너의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온다.'

■ 역사기행

과거(科擧)길 문경(聞慶)새재

▣ 향촌 권 오 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지난호에 이어〉

쉬지말고 세사(細沙)를 깔아놓은 도로를 따라 무거운 등산화는 벗어들고 맨발로 걸어 내려와도 좋다. 고운 모래는 최근래에 문경시청에서 아름답고 역사적인 관광지조성을 위하여 맨발로 걷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관광객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원터에서 조금 내려오다가 보면 왕건교(王建橋)를 오른쪽으로 보고 그 다리를 건너면 KBS"태조왕건" 드라마를 촬영한 사극 오픈 세트장이 있다.

왕건교는 원래없었던 것을 영화촬영 때문에 놓은 다리이고 이 다리를 건너면 70, 000㎡의 산과 계곡이 둘러 쌓인 대지위에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천주전 등 건축물이 리모델링되어 있고 궐내각사와 양반촌 초가촌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고려촌을 형성하였다고 하는데 그곳이 개성과 비슷한 지형으로 선정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세트장에 많은 투자효과를 얻어 영구세트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세트장 산쪽으로는 "일지매" 산채가 있어서 역시 영화촬영장이다.

길 따라 오픈세트장을 걸어서 내려오면 왼편 산자락에 옛 비석을 줄지어 새워 놓은 곳이 있다.

이곳은 주로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분이라던지 현감 등의 그 시대시대의 치적을 음각 또는 양각하여 세워놓은 치적비 공적비 송덕비 충렬비 산불조심비 시(詩)비 등이다.

예나 지금이나 모두가 이름 남기기를 좋아하는 까닭이라고 한편 생각에 잠겨본다.

비석거리를 지나면 드디어 영남 제1관문인 주흘관(朱仡關)에 도착된다.

주흘관은 역시 1708년(숙종34년)에 축성된 것인데 최근 깨끗하게 복원하였다.

성벽 요소요소에는 "영기(令旗)를 꽂아 놓아 전투태세를 갖추어 놓은 듯 바람에 나부낀다. 영기는 청색바탕에 붉은 글씨로 영(令)자를 쓴것인데 장군의 군령(軍令)을 하달하는 깃발이다.

지금까지 충북에서 경북으로 넘어온 새재의 길을 통과하였다. 왜냐하면 영남으로 들어오는 제1관문이 문경땅에 있기 때문이다.

주흘관을 지나면 옛길박물관 자연생태공원 새재길 관광안내소 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산책로 유스호텔 4계절 썰매장 관광관리사무소 2개의 대형주차장 자연생태전시장까지 와서 다시 되돌아 올라간다면 경북문경에서 충북충로 새재길을 넘게 되는 것이다.

구름이 걸려있는 높은 산과 푸른 창공을 만나고 맑은 산림계곡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흙길을 걸으면서 영광과 고난의 역사사적 기록을 살피고 또한 자랑스런 선인들의 풍류를 느끼며 문경새재를 온통 체험할 수 있다.

첨언한다며는 1981년 문경새재 주변 5.5Km를 경북도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1982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새재와 인접하고 있는 시군행정구역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예천군 상주시와 가깝고 등산은 주흘산 (고1,106m)이 주가 되고 그 주변의 황장산 (고1,077m) 대야산(고930m)화양산(고999.1m)의 각각의 코스가 있으나 시간과 코스는 등산객이 알맞게 선정하면 된다.

새재로 가는 교통편은 서울기점으로 승용차로는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새재IC 문경시로 진입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서울에서 3번국도 성남시 이천시 충주시 수안보 문경시로 진입할 수 있다.

서울에서 버스로는 동서울 터미널 점촌간 2시간 소요로 6시부터 30분간격으로 운행되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점촌간 2시간소요로 6시30분부터 50분에서 150분 간격으로 운행 된다.

현지숙식은 호텔 여관 리조트 펜션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비싼편이 아니고 음식은 약돌 돼지고기구이가 특식이고 토속음식과 사과 배 대추 오미자 표고버섯 등이 특산물이며 현지 주류가 관광객을 즐겁게 한다. 운(運)이 좋으면 현지 상설 무대에서 가무 등 축제 무대를 관람할 수 있다.

새재길에서 시간이 남는다면 문경시내 알카리성 온천욕과 그곳 원근의 관광지를 찾으면 좋다.

특히 문경시내 청운각(靑雲閣)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그곳 심상소학교 훈도로 재직시에 2년9개월동안 기거했던 하숙집을 정화하여 박대통령이 쓰던 책상과 가방 이불 당시 사진등이 진열되어 있고 그 집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박대통령과 영부인 영정을 모신 신축한 사당을 볼 수 있다. (끝)

海史 權五運회장 수필 '웃음부자' 발간

해사 권오운

"'삶은 아름다운 것이며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라는 항상 긍정적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낸 지난날 삶의 편린들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 조각조각을 이어 조각보를 만들 듯이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수필 '웃음부자' 란 책이 215쪽으로 지난해 12월 7일 도서출판 문학바탕 刊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인 海史 權五運(68, 영주. 검교공파 35世)씨가 공무원, 시민운동가로서 열정과 긍정적 삶의 이야기, 33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가를 틈타 생에 대한 느낌을 그때그때 글로 써서 각종 언론기관에 기고도 하고, 퇴직 후 (사)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회장으로서 <선거문화>지에 실은 글들을 선별하여 엮었다.

이 수필집은 여섯 개의 부(部)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는 '웃음부자', 2부는 행복심기, 3부는 삶이 무엇인지, 4부는 발상의 전환, 5부는 발자취와 걸어갈 길, 6부는 우정과 사랑의 글로 편집되었다.

이 책에 대해 김홍신 소설가는 저자 권오운 선생은 오랜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겸손하고 늘 따사로운 미소와 눈길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넉넉한 마음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좌우를 보듬은 가슴에서 큰 사람임을 느끼게 해 주었다. 33년 동안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며 틈틈이 글을 쓸 만큼 내면을 가다듬은 정성은 사람과 사물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에게서 정겨운 향기를 느끼는 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운회장은 건국대 및 동대학원(행정학석사)을 졸업하고 노동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공직 33여년을 봉직했으며 현 (사)바른선거시민모임 중앙회장, '선거문화' (계간지) 발행인, 수필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등으로 이나라 공명선거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홍조근정훈장 수훈과 논문으로 '국가기술자격취득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 '외 저서 다수가 있다.

010-3170-0962(권오운)

〈권오복 편집위원〉

권영호 안동 남성합창단장

제25회 정기연주회

안동남성합창단장(단장 권영호)은 지난 12월 21일 오후 7시 30분, 안동문화 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마산여성합창단 단원회원 및 안동시민, 노래애호가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권영호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25회 정기연주회를 가지게 된 것을 합창단 회원(단원)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배인규 고문, 우성규 지휘자, 김시진 반주자, 마산여성합창단원, 본 행사에 협찬자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남성합창단, 마산여성합창단 팀 1~2부 노래, 김시진 반주자, 우성규 지휘로 출연해 1시간여에 걸쳐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권혁세 기자〉

이달의 시

바람이 되자

권경업 詩人
62才 안동·별장공파. 36世
(사)아름다운사람들代表

우리
첫눈 내리는 영마루 바람이 되자
서로를 찾아가는 바람이 되자
나는 남녘 기슭 거슬러 올라가고
너는 북녘 산등 타고 내려와
전하지 못 했던 옛소식
천지간에 날리 우는 바람이 되자
첫눈 내리는 영마루에서
자작나무 스스로 옷을 벗을 때
우리 전설에 수(繡) 놓는 바람이 되자.